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03-5254 (사무실) 707-2606 (담당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4. 하나님이 친히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고요한 곳으로 가자”는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공포와 불안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세미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일만 무성할 뿐 열매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웅졸했던 자아로부터 벗어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텅없는 희망과 부질없는 교만을 버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세상의 밀돌로 삼아주십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인도자
♠ 교 독 문	1. 시편1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함께
성경봉독	시85:8-13	인도자
	요15:1-8	정경례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신실함의 소원	김재흥 목사
	II. 포도나무와 가지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75.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몸을 낮추어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중심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원망과 탄식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겠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5)/김재흥 목사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유영남 권사	기도 : 윤주원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김재흥 목사	인도자 고광송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송양진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근종 곽혜자	배상순 문인옥

동역자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를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사랑과 친절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한 가지뿐입니다. 곧 우리가 모두 예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의 선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동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삶을 심화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포와 폭탄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깊은 사랑, 그리스도와의 깊은 일치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사랑과 자비가 솟구쳐야 합니다.

동역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기 전에 먼저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현대 세계에는 불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러한 불행 대다수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치, 기도, 친교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로서 평화와 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역자는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잘 알

려져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동역자들이 또 하나의 조직, 모금 활동에 분주한 복지 단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역자는 사명, 곧 사랑의 사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싹튼다. 그리고 거기서 가족, 이웃,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런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요한복음15:5)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열매는 원줄기가 아니라 가지에서 맺힙니다. 열매는 가지와 원줄기의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15장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선교회 본회는 원줄기이신 예수와 하나가 된 가지입니다. 동역자들도 저마다 예수와 하나가 된 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의미심장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의 일이 정녕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되려면 희생에 기초해야 합니다.

현대 세계에는 불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행은 굶주림, 주거 박탈, 온갖 질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사랑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접촉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불행입니다.

그러니 더욱 깊이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시다. 우리 모두 평화와 사랑과 자비의 도구가 되기를…….

■ 마/음/으/로/읽/는/글

처음 만나던 때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서로 말을 놓자고 합니다
멈칫거릴 사이도 없이
—너는 그 점이 틀렸단 말이야
—야 돈 좀 꿩다우
—개새끼 돼지고 싶어
말이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친밀하게 느끼고 마침내
먹살을 잡고
싸우고/죽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경어로 인사를 나누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앞으로만 달려가면서
뒤돌아볼 줄 모른다면
구태여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먹이를 향하여 시속 140km로 내닫는
표범이 훨씬 더 빠릅니다
서먹서먹하게 다가가
경어로 말을 걸었던 때로
처음 만나던 때로 우리는
가끔씩 되돌아가야 합니다 (김광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최인환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양재성 오진훈 노순옥 박홍엽 이은옥 장영숙 김근종 정옥영 김종수
이순정 영혜영

월정헌금:

박찬정 정원석 김현영 김성자 김남종 오복순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최윤희 이호원 권미정

감사헌금:

권명자 서정순 영혜영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박두석 이건화 박수민
박민호 김철수 이인섭 김춘려 문금석 이동은 권채영 박성면

생일감사헌금: 최희영 안종일

(* 새해 감사 헌금 봉헌자 명단은 생략합니다)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섬	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의무헌금봉헌** : 오늘 예배는 의무헌금봉헌주일로 지킵니다. 작정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가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재무부회의** :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집회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4.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장년부 - 오전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집회는 저녁 7시 30분, MYF -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5. **구역회** : 올해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방회 대표를 뽑는 구역회가 감리사님의 주재하에 1월 15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남녀선교회장 대표, 당회서기, 감사 등입니다.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6. **동호회** :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세 번째 주일 오후는 동호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좋은 사귄과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7. **임원교육** : 2006년 임원교육이 2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신입원들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평화 세상을 여는 녹색 교회>라는 교회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 헌화 : 이교영 집사 (그냥)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